

행복한 육아, 육아존중 문화로부터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2020년 혼인건수는 역대 최저치인 21만 4,000여 건이었고,¹⁾ 합계출산율이 0.84명으로 떨어져 출생아 수는 27만 2,000여 명이 그쳤다. 저출생은 경제적으로 생산과 소비를 감소시켜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저출생 현상은 여러 사회문제의 집결체이자 우리 사회의 가치와 문화의 현주소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1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출산 장려 정책에 투입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보지 못했다. 이는 현금지급 유인책만으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정책 패러다임의 일대 변화를 요구한다.

최근 육아 트렌드는 행복한 부모가 최고의 양육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한다.²⁾ 이러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맞추어 관련 정책도 행복한 육아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저출산 부분에 양육자와 아이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추진계획이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점도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³⁾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현금 지원이나 국가의 전적인 책임으로 해결하려는 일차원적인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양육을 긍정으로 인식하고 존중하는 문화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육아존중 문화는 육아에 대한 가치 인정과 사회적 존중이라는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⁴⁾, 개인은 물론 기업, 정부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가치와 행동 양식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아이를 낳고 기르고 싶은 사회는 개인뿐만 아니라 정부, 기업 등 사회의 각 영역이 협력하여 육아를 존중할 때 실현되기 때문이다.

1)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18/2021031801361.html(2021년 3월 18일 자)

2)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1311791042778>(2019년 2월 19일 자)

3) 강은진·권미경·김보미·황명화·김희교(2021).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II):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지표 지역별 맞춤형 시범 진담 및 적용. 육아정책연구소, p. 1(머리말).

4) 권미경·김나영·김아름·최인화·김영민·신하은·강민정·이승현·권소영(2020).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II): 직장에서의 육아존중문화 조성. 육아정책연구소, p. 21.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전체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특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장기 휴원으로 인한 돌봄 공백, 온라인 학교 수업으로 인한 부모의 부담 증가 등 양육 부담 및 일·가정 양립의 갈등은 사회 전체의 문제로 대두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돌봄휴가의 유급휴가로의 전환, 재택근무 제도 활성화, 유연근무제 확대 등 일·가정 양립제도의 적극적인 시행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⁵⁾

최근 집중되는 일·가정 양립제도의 확대와 안정화는 양육자에게 물리적 시간을 확보해 주고, 정서적, 경제적 측면까지 지원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친 육아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올해 4월에 발표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⁶⁾에는 가족친화인증 기업의 인센티브 확대, 육아휴직의 적용 확대, 육아 돌봄에 대한 남녀 차별 방지 등 평등한 돌봄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돌봄 친화적 환경을 개선하고,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육아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되, 차별 없이 평등하게 존중받는 양육 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여건을 마련해 주는 정책 기조라고 볼 수 있다.

문화는 한 사회의 개인이나 집단의 물질적·정신적 산물이며,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의 변화가 문화의 변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제도와 정책의 변화는 사회 구성원의 행동 양식의 변화를 이끌 것이고, 그러한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⁷⁾.

이러한 정책의 변화로 육아가 더는 힘들어 아닌 행복이자 즐거움으로 다가오고, 나아가 사회 전반에 희망을 주는 문화로 안착하기를 기대해 본다.

5)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코로나19 대응 http://www.moel.go.kr/policy/corona19/detailList.do?tpi_seq=125(2021년 6월 12일 인출).

6)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1. 4. 27일자). 2025 세상 모든 가족 함께 『모든 가족, 모든 가족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 만들어 가겠습니다-「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 수립 내용 요약·발체함.

7) 권미경·김나영·김아름·최인화·김영민·신하은·강민정·이승현·권소영(2020).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II): 직장에 서의 육아존중문화 조성. 육아정책연구소, p. 21.